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10.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08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지수 6개월 연속 50선 주위에서 횡보세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사상 최악 수준 지속

- 2008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2.2p) 감소한 50.1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연속 5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으로써 건설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상황을 이어감.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 폭이 매우 컸음(25.7p 하락)을 감안할 때 통상 6월 이후에는 경기변동 주기상 통계적 반등이 시현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지수는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 지난 5월의 49.3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5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통상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9월에도 지수가 소폭 하락해 50선 초반에 머뭇.
 - 지수가 최저 수준인 50선 주위에서 6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인 것은 CBSI 조사 이래 처음('04년 7~11월 5개월 연속 50선 주위 횡보세 기록)으로 건설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상황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선 미분양 아파트,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국내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수요 침체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가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6월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을 시현한 중견, 중소기업체는 다시 지수가 하락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악화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7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임.
 - 중견, 중소기업체는 지난 6월 사상최저 수준(중견 34.5, 중소 26.5)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15.5p, 11.6p 상승)을 시현했지만, 9월 들어 전월대비 각각 5.6p, 1.0p 하락한 44.4, 37.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됨.

- 공사물량 지수 역시 전월대비 4.6p 하락한 58.9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 비주택 물량 지수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대비 큰 폭(20.4p)으로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주택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월에 3.1p, 3.0p씩 하락한 주택, 비주택 물량지수는 9월에도 각각 1.1p, 3.5p 하락한 50.5, 62.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 지난 8월 상반기 지연됐던 발주의 정상화로 전월대비 8.5p 상승한 71.3을 기록했던 토목물량 지수는 지수 상승 한 달만에 다시 20.4p가 하락한 50.9를 기록해 9월 발주가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자재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관련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가 95.2를 기록하여 인력수급 상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50선을 넘지 못했던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 29.9p 상승에 이어 9월에도 3.7p 상승한 84.2를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악화됐던 자재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고 있음.
- 그러나,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8.2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65.2에 불과해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금도 전월 2.4p, 17.7p 하락에 이어 9월에도 전월대비 각각 6.9p, 4.6p 하락한 60.3, 60.8을 기록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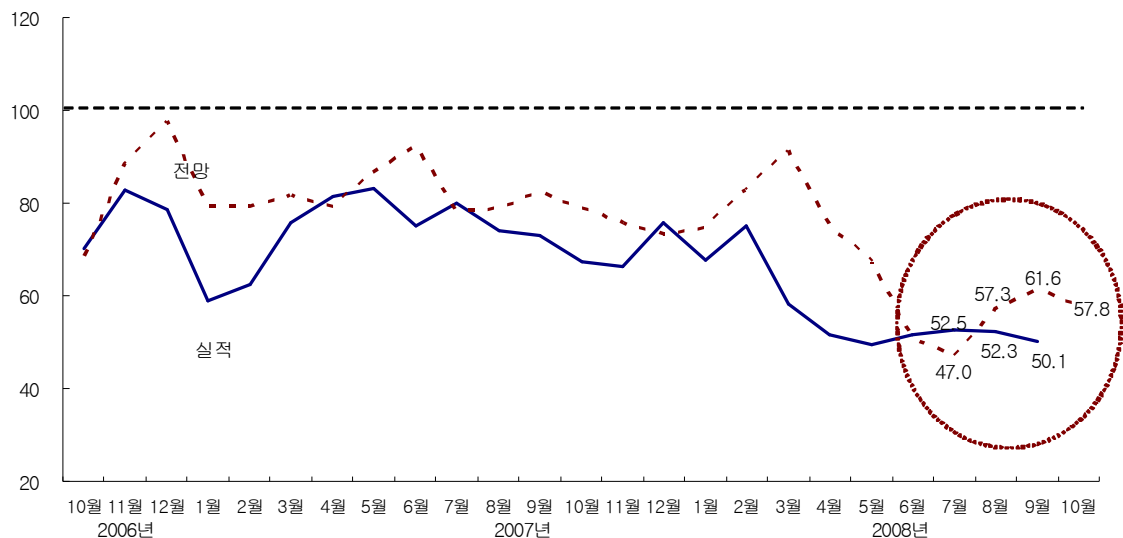
※ 붙임 : 2008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2008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지수 6개월 연속 50선 주위에서 횡보세
체감경기 침체, 사상 최악 수준 지속

- 2008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2.2p) 감소한 50.1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연속 5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으로써 건설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상황을 이어감.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 폭이 매우 컸음(25.7p 하락)을 감안할 때 6월 이후에는 경기 변동 주기상 통계적 반등이 시현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지수는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 지난 5월의 49.3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5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통상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9월에도 지수가 소폭 하락해 50선 초반에 머뭇.
- 지수가 최저 수준인 50선 주위에서 6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인 것은 CBSI 조사 이래 처음('04년 7~11월 5개월 연속 50선 주위 횡보세 기록)으로 건설업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상황을 이어가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이에는 미분양 아파트,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국내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수요 침체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가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6월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을 시현한 중견, 중소기업체는 다시 지수가 하락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악화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7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임.
 - 중견, 중소기업체는 지난 6월 사상최저 수준(중견 34.5, 중소 26.5)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통계적 반등(15.5p, 11.6p 상승)을 시현했지만, 9월 들어 전월대비 각각 5.6p, 1.0p 하락한 44.4, 37.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7년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6.4	75.7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0.1	61.6	57.8
구 모 별	대형	70.0	81.8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66.7	66.7	66.7
	중견	73.1	76.9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44.4	64.3	51.9
	중소	54.7	67.2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7.1	52.5	54.1
지 역 별	서울	75.8	82.6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57.8	68.1	61.6
	지방	51.9	61.6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8.3	49.7	51.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57.8로 전월대비 4.8p 감소,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4.6p 상승하였으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30선인 38.3로 지방업체의 침체가 매우 심각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4.8p 하락하였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물량 감소(물량지수 전월대비 7.6p감소)와 공사대금 수급의 어려

움(공사대금수급 지수 전월대비 11.5p 감소)이 주원인으로 판단됨.

- 지방업체의 지수가 전월 보다 4.6p 상승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지수가 40선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업체의 침체가 매우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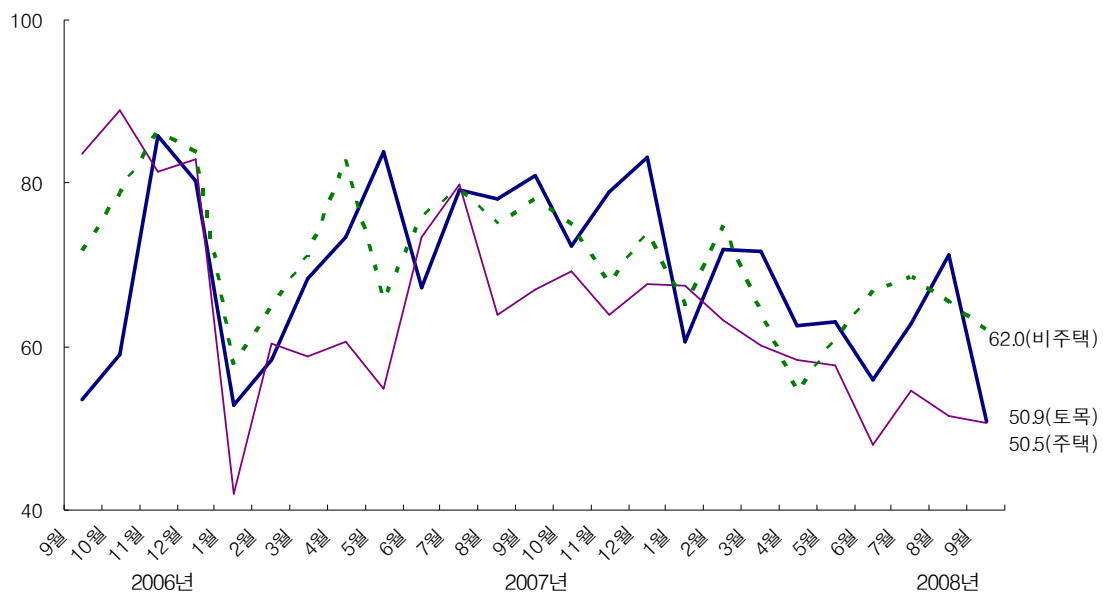
- 2008년 10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57.8을 기록하여 9월보다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66.7, 중견업체는 51.9, 중소기업체는 54.1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61.6, 지방업체는 51.9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4.6p 하락한 58.9 기록,
토목 물량지수 큰 폭(20.4p) 하락

- 공사물량 지수 역시 전월대비 4.6p 하락한 58.9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 비주택 물량 지수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대비 큰 폭(20.4p)으로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월에 3.1p, 3.0p씩 하락한 주택, 비주택 물량지수는 9월에도 각각 1.1p, 3.5p 하락한 50.5, 62.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 지난 8월 상반기 지연됐던 발주의 정상화로 전월대비 8.5p 상승한 71.3을 기록했던 토목물량 지수는 지수 상승 한 달만에 다시 20.4p가 하락한 50.9를 기록해 9월 발주가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의 물량 지수가 각각 66.7을 기록(전월대비 각각 11.1p와 2.6p 하락함), 대형업체의 지수가 토목 물량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체의 지수는 전월보다 0.7p 상승한 41.0이나 지수가 40선에 머물러 침체가 여전히 심각함.
- 대형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11.1p 감소한 66.7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의 감소(전월 대비 52.5p)가 두드러짐.
 - 중견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2.6p 하락한 66.7 기록
 - 중소기업체의 경우 비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9.3p 증가하였으나, 토목 물량이 전월 대비 5.7p 감소하여, 종합 물량지수가 전월과 비슷한 41.0기록, 침체가 여전히 심각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8.9	66.7	66.7	41.0	71.7	46.4
	전망	67.4	75.0	74.1	50.8	74.3	52.6
토목	실적	50.9	36.4	66.7	50.0	51.2	51.2
	전망	61.1	54.5	70.8	57.6	65.2	55.6
주택	실적	50.5	50.0	68.0	31.3	58.0	39.4
	전망	61.9	66.7	72.0	44.9	71.3	48.0
비주택	실적	62.0	83.3	62.5	36.4	72.2	46.1
	전망	65.8	83.3	62.5	49.1	75.5	52.6

주 : 실적은 2008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10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7.6p 하락한 71.7을 기록 침체가 악화됨.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0.8p 증가한 46.4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물침체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장기간 지수가 악화되는데(4개월 동안 30선에 머무름)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여전히 침체가 심각함.
- 2008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7.4를 기록하여 9월보다 공사물량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 여전히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자재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관련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60.8	58.3	63.0	61.3	60.8	61.0
		전망	69.6	66.7	70.4	72.1	68.8	71.0
	자금조달	실적	60.3	66.7	59.3	54.0	58.6	62.6
		전망	57.1	50.0	59.3	62.9	48.9	69.3
인력	수급	실적	95.2	100.0	100.0	84.1	97.0	92.4
		전망	93.4	100.0	96.3	82.3	97.8	86.6
	인건비	실적	84.1	100.0	77.8	72.6	89.7	75.4
		전망	84.5	100.0	74.1	78.3	90.5	75.3
자재	수급	실적	84.2	91.7	85.2	74.2	90.6	75.3
		전망	80.3	83.3	81.5	75.4	86.7	71.7
	비용	실적	65.2	83.3	59.3	50.8	71.9	55.2
		전망	67.8	83.3	66.7	50.8	75.3	56.4

주 : 실적은 2008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10월 예측지수임.

- 인력수급 지수가 95.2를 기록하여 인력수급 상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50선을 넘지 못했던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 29.9p 상승에 이어 9월에도 3.7p 상승한 84.2를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악화됐던 자재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고 있음.
- 그러나,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8.2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65.2에 불과해 그동안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도 전월 2.4p, 17.7p 하락에 이어 9월에도 전월대비 각각 6.9p, 4.6p 하락한 60.3, 60.8을 기록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